

05 한·중 FTA관련 중전기기의 동향 및 방향

주영훈 / 군산대학교 교수

현재, 중전기기 산업계는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 중전기기의 중저가 제조분야에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국내 중전기기 업계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의존도의 증가 및 기존의 분업관계(중간재)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전반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된다. 본 원고에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무역자료를 통하여 한·중 FTA관련 중전기기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중전기기 세계시장 및 국내 시장 현황

2012년 중전기기 세계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조 548억불로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최근 2년간(2010~2011)의 평균 성장률 5.0% 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표 1). 그러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아세안 국가 및 신흥국은 소폭의 경제 성장률로 인하여 3.7% 내외로 증가한 시장형성이 전망된다.

표 2에 의하면 국내 2012년 중전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생산 8.0%, 수출 13.2%, 수입 14.1% 증가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세로 전망된다.

표 1 2012년 세계 전기산업 시장 전망 (단위:억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054	9,687	10,172	10,548

※출처:2012 국내외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산업전기진흥회)

표 2 전기산업 수급실적 및 전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추정)	2012(전망)
생산(십억원)	30,671	32,799	35,584	39,425	42,579
수출(백만불)	8,416	8,006	9,947	11,538	13,066
수입(백만불)	8,897	7,935	10,026	12,031	13,739
수출비중(수출/생산)	27.4%	24.4%	27.7%	29.3%	30.7%
수입비중(수입/내수)	29.0%	24.2%	27.9%	30.5%	32.3%
평균환율(원)	1,105	1,276	1,156	1,100	1,050

※출처:2012 국내외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산업전기진흥회)

2012년의 국내시장이 낮은 증가세로 전망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세계 및 한국경제 성장률의 하락, 원화의 강세, 전력 및 발전사의 경영적자로 인한 투자의 불확실성을 꼽어볼 수 있다.

중전기기의 2012년도 생산은 세계경제 성장률의 감소에 따라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의 둔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증가세의 유지로 인해 전년대비 약 8.0% 성장세가 예상된다(표 3). 수출전망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8%의 큰 폭의 수출증가 및 아세안 5개국과 사우디 및 일본등의 수출 증

표 3 전기산업 생산전망

구분	2009	2010	2011(추정)	2012(전망)
생산(십억원)	32,799	35,584	39,425	42,579

※출처:2012 국내외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산업전기진흥회)

표 4 전기산업 수출전망

구분	2009	2010	2011(추정)	2012(전망)
수출(십만불)	8,006	9,947	11,538	13,066

※출처:2012 국내외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산업전기진흥회)

표 5 국가별 수출전망

(단위:백만불, %)

구분	2010			2011(추정)			2012(전망)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중 국	3,322	29,3	33,4	3,653	10,0	31,7	4,312	18,0	33,0
사우디	489	7,2	4,9	698	42,8	6,1	1,041	49,1	8,0
미 국	933	12,3	9,4	942	0,9	8,2	961	2,1	7,4
일 본	357	11,2	3,6	488	36,6	4,2	674	38,2	5,2
인 도	477	137,3	4,8	485	1,7	4,2	530	9,2	4,1
홍 콩	292	35,8	2,9	347	18,8	3,0	428	23,3	3,3
UAE	146	-47,7	1,5	167	14,1	1,4	196	17,6	1,5
아세안5개국	1,761	19,6	17,7	2,368	34,5	20,5	3,293	39,0	25,2
기타	2,170	30,6	21,8	2,390	10,2	20,7	1,631	-31,8	12,5
합계	9,947	24,2	100	11,538	16,0	100	13,066	13,2	100

※출처:2012 국내의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산업전기진흥회)
 ※아세안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표 6 중국의 중전기산업의 전체시장 및 수출값 (단위:만불)

국가 및 지역	2009	2010	2011	비고
전체시장	28,603,760 (+2.4%)	39,256,924 (+37.2%)	49,366,924 (+25.7%)	시장품목: 전기전 자,전자부품,전자 계측기기,전자장 비,전기전자정보 기기
수출	14,646,774 (-5.6%)	20,259,412 (+38.2%)	23,964,229 (+18.3%)	

※자료: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가세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4, 표 5).

2.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중국의 중전기 시장 규모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2011년도 집계액은 총 4천9백366억불로 중국의 내수시장 부흥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규모 전력설비 및 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산업이 진행 예정이어서 중국의 시장의 규

표 7 중국 중전기산업의 주요국별 수출입값과 증가율 (단위:억불, %)

국가 및 지역	수출	증가율 (2009-2010)	수입	증가율 (2009-2010)
유 럽	3,112	32,8	1,685	31,9
미 국	2,833	28,3	1,020	31,7
중국 홍콩	2,183	31,3	123	40,9
아 세 안	1,382	30,1	1,546	44,8
일 본	1,211	23,7	1,767	35,0
한 국	586	28,1	1,384	35,0
인 도	409	38,0	208	51,8
러 시 아	296	66,0	258	21,7

※자료: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모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전기 산업의 주요국 별 수출입 값은 표 7과 같다. 2010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의 6번째 주요 수출국으로 평가되며, 수입국가로서 4위로 평가된다. 국가별 한국의 중전기 수입 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은 중전기 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1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표 8 국가별 전기 수입실적

(단위:천불, %)

순위	국가명	2009		2010		2011		비중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중국	2,882,013	-16,7	4,047,698	40,4	5,853,216	44,6	49,1
2	일본	1,657,950	-5,0	2,178,531	31,4	2,306,295	5,9	19,3
3	미국	756,608	-4,1	909,595	20,2	927,325	1,9	7,8
4	독일	457,321	-36,1	546,717	10,5	664,662	21,6	5,6
5	대만	252,637	52,7	314,386	9,6	300,027	-4,6	2,5

※자료:한국무역협회

큰 수입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중전기기 수입 비중이 무려 49.1%로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하게 될 경우 그 비중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국내 대기업들이 수출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설비의 유지 보수 및 핵심 부품 등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중국산 등 저가 부품 등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2012년도에는 673백만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전기기의 한·중 FTA 주요 이슈

2012년 5월 2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본격적인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협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5월 10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로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전기기의 경우 내수 시장 확대보다는 현재 국내의 중전기기 산업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중전기기의 경우 한·중 무역관계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한국 중전기기 수입의 비중이 49.1%에 해당된다. 이는 중국이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경우 한국의 내수시장이 상당부분 잠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저가의 부품공급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의 중전기기의 흐름을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 시장은 대기업에 비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크다. 2012년초 FTA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산업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분야를 통계학적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FTA 체결로 인한 영향 분석에 들어갔다. 중전기기 197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동기, 변압기, 개폐기, 변환 및 안정기, 차단기, 배전 및 제어기, 기타 중전기기, 전선 등 총 8개 제품군 54개 품목이 고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국내시장 역시 중국 제품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전기기 산업계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중전기기 품목에 대해 장기유예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민감도에 따른 개방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유연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협약에 걸리는 시간을 향후 2~3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은 국내의 중전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정부와 산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형식 인증과 공인 검수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모조품과 원산지등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체는 보다 원가 절감과 기술개발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간 공동 표준화 모델 및 공동 수출 모델 등을 설계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 한·중 FTA는 중전기기 산업에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전기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국내 한전 등과 같은 안정적인 내수로 인해 해외 수요 창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한·중 FTA를 기회로 국내 기업체간 경쟁이 아닌 해외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